

News

호실적 이어가는 주요 금융그룹 중간배당 시동...“주가 제고 박차”

아시아투데이

금융지주들, 본격적으로 배당 준비 중... 주주명부 폐쇄하며 사전 조치 진행했고 분기배당 정례화한 신한금융도 2분기 말 배당에 나설 전망
주주 Lock-in 및 유입 효과와 함께 배당으로 인한 재투자 가능성이 점쳐지며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당국의 자율성 보장도 긍정적 영향

적격대출마저 연 5%...정책상품 금리도 들쭉

이데일리

적격대출, 19일 기준 연 4.6%에 판매... 작년 1월 2.55%에 비교하면 2.05%p 급등... 글로벌 긴축 움직임에 국고채 금리가 치솟았기 때문
국고채 5년물은 17일까지 0.599%p 급등해 2011년 8월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5%를 향해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역시 금리 상승 불가피

은행대리업 가능성에...은행 '신중', 핀테크 '온라인도 적용해야'

전자신문

금융위원회, 올 4분기까지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구체화 계획...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 은행 서비스 이용 가능 긍정적 측면
은행 업무의 일부 및 전부를 은행이 아닌 자가 대리 및 중개하는 업... 현재 라이선스 도입 구체화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 검토 중

채권 금리 급등하자 은행 줄 서는 기업...“대출 좀 합시다”

머니투데이

지난달 기준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전월비 13조 1,000억원 증가... 5월 기준 코로나19 대응 목적 일시적 급증한 2020년 제외하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특히 대기업이 최근 두 달 연속 4조원 이상 대출 진행... 최근 금리 급등으로 혼란스러운 채권시장에 채권 발행 연기 및 포기 중... MMDA도 전월비 5조 4,762억원 감소

백내장 진단받아도 고액 수술비 실손보험금 받기 어려워질수도

연합뉴스

대법원 민사2부,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라고 여길 수 없다는 판단내려... 환자의 개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고려해서는 안돼...
가입자가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 명확히 받고 수술하더라도 통원치료 보장한도를 넘어서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기 어려워져... 불필요한 입원치료 시술 권유 사례 감소 예상

살림 팍팍해진 가게, 보험 안든다... 생보사 1분기 신계약 11% 감소

파이낸셜뉴스

보험 신계약 건수, 작년말 502만 1,078건에서 22년 450만 8,905건으로 11% 감소... 신계약 보험료도 작년말대비 25.3% 급감
코로나19 이후 가계경제 어려워지며 신계약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특히 생보사는 중신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등 보험료 높은 상품 주력이라서 회복이 쉽지 않아 보여...

주가 급락에 ‘반대매매’ 하루 300억... 외국인 매도세 이어져

동아일보

16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302억 6,900만원...반대매매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투자자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신용거래용자 잔액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20조 6,863억원 기록...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지속되며 물량 쏟아지는 점도 악재

ELS, 증시 급락세에 원금 손실 현실화... 작년 발행 상품 중 상당수 ‘녹인’ 진입

국민일보

작년 발행된 ELS 15,408개 중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품 145개가 Knock-In 구간에 진입한 적 있어... 1~2월 발행 상품 9개가 벌써 Knock-In 구간 진입
조기상환 금액도 급격하게 감소... 지난달 8,000억원, 이번달 4,800억원 수준...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원금 손실 공포 확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